

LÉVY GORVY

레비고비, 프리즈 기간 중 알베르트 올렌의 예외적인 설치작업
런던에서 최초 공개

라이드 더 와일드
올렌 / 웨스트 / 울

Ride the Wild
Oehlen / West / Wool

2019년 10월 2일 ~ 11월 28일

레비고비 런던
22 올드 본드 스트리트
런던 W1S 4PY

오프닝 리셉션: 10월 2일 수요일, 오후 6-9 PM



런던—레비고비 런던은 유럽과 미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세 이단아 알베르트 올렌(Albert Oehlen), 프란츠 웨스트(Franz West)와 크리스토퍼 울(Christopher Wool)의 예술적 관계를 탐색하는 <라이드 더 와일드 Ride the Wild>展을 2019년 10월 2일 개막한다. 청년시절 베를린의 포스트펑크(post-punk), 비엔나의 액션리즘(Actionism), 뉴욕의 노웨이브(No Wave) 등 각자 급진적 도시 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한 세 작가는 이제는 동시대미술에 널리 퍼진 ‘펑크’ 감성의 창시자가 되었다. <라이드 더 와일드>는 공통적으로 실용과 형식을 거부하는 이들의 작업을 통해 각자의 환경에 따라 진화하며 서로 공명하면서도 독창적인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올렌의 작업에서 매우 예외적인 설치작품 <무제 Untitled>(2005)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최근작을 모두 아우르는 이번 전시는 올렌(b.1954)과 웨스트(1947-2012), 울(b.1955)의 작업을 최초로 한자리에 소개한다.

순수미술과는 거리가 먼 실험적인 재료와 테크닉을 전면에 내세운 올렌과 웨스트, 울은 오랜 세월 친분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작품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에는 웨스트가 한때 소장했던 울의 작품 <무제 Untitled>(1989)도 포함되어 있다. 웨스트와 올렌은 1980년대 중반 두 작가 모두 쾰른의 막스 헤츨러(Max Hetzler)와 비엔나의 페터 파케쉬(Peter Pakesch) 갤러리 전속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1988년 베를린에서 처음 만난 울과 올렌은 이후 가까운 동료로서 여러 인터뷰를 함께 진행했을 뿐 아니라 회화의 위기가 끊임없이 거론되던 시절 매체에 대한 의미있는 대화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울은 도장이나 스크린인쇄 등의 복제기술을 활용하여, 올렌은 비전통적 색감과 구성을 적극적으로 실험하며 두 작가는 계속해서 회화의 경계를 확장시키려고 했다. 웨스트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실험적인 작업으로 순수미술의 정통성을 해체하고자 했다. 오랜 세월

그의 스튜디오 매니저로 일했던 이네스 튜리언(Ines Turian)은 “프란츠의 원래 아이디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상반되는 ‘추한 것’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보기 좋은 작품이 탄생했고 프란츠는 이를 항상 흥미롭게 생각했다.”라며 회상했다. <라이드 더 와일드>는 전통적 미학적 기준으로부터 끊임없이 탈피하려 했던 세 작가의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집중 조명하며 20 세기 말과 21 세기 초 미술사에 그들이 남긴 주요한 업적을 기념한다.

아울러 프리즈(Frieze) 기간 동안에는 올렌의 핵심적 설치작업인 <무제 Untitled>(2005)를 영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다. 켈른에 위치한 작가의 침실을 재현한 이 작품은 노란색 벽지, 카펫, 침대와 화분 속 식물까지 있는 그대로 담고 있다. 공간 안에는 레코드플레이어, hi-fi 시스템과 LP 옆에 놓인 주황색 인덕션과 작은 모카포트까지 개인적인 물건들로 가득하다. 심지어 침대 안에는 작가 본인도 재현해 놓았다. 이불 아래 살포시 숨겨진 자화상 위로는 붓을 든 손이 마치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회화적 구성에서 벗어나 작품의 창조자인 작가의 공간을 조명하며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그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차곡차곡 쌓인 레코드판은 음악에 대한 작가의 취미를 반영하는 반면, 벽에 붙은 포스터는 비엔나 제체시온(Secession)에서 열린 과거 전시를 기념한다. 동시에 작품 안에서 자화상이 숨겨진 침대는 공간 전체를 전복시키며 올렌의 작업에서 늘 확인할 수 있는 패러디와 풍자를 보여준다. 마드리드의 갤러리아 후아나 데 아이즈푸루 (Galeria Juana de Aizpuru)에서 처음 선보인 이 예외적인 작품은 이후 비엔나 현대미술관(mumok)에서 열린 작가의 회고전 이후 뉴욕 뉴뮤지엄(New Museum)과 베니스 팔라쥬 그라시(Palazzo Grassi) 에서 전시된 바 있다.

올렌, 웨스트, 울은 지속적으로 ‘고급 취향’의 패러다임을 거부하며 이미지와 기술이 무한히 재생산되는 시대에서만 가능한 다감각적 예술을 추구해 왔다. 그들의 작업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동시에 음악, 광고, 문학, 그래피티에서 영감을 받은 비전통적인, 반문화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라이드 더 와일드>는 세 작가의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미학적 저항을 탐색함과 동시에 각자만의 엄격한 작업방식과 개념적 틀을 고수해온 각각의 독립적인 작업세계를 조명한다. 올렌과 웨스트, 울의 작업 안에 담긴 담론들을 더욱 깊이있게 사유함으로써 이번 전시는 예술은 관객을 사로잡고 자극하며, 동시에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예술관을 더욱 견고히 확인하고자 한다.

레비고비 (Lévy Gorvy) 소개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 뉴욕 매디슨가 909 번지, 런던 메이페어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세 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인 레비고비 럼블러(Lévy Gorvy with Rumbler)를 통해 전 세계 개인 컬렉터 및 미술기관에 맞춤형 프라이빗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비고비 뉴욕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 1 212 772 2004

레비고비 런던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 44 (0) 203 696 5910

레비고비 홍콩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 852 2613 9568

www.levygorvy.com | @levygorvy

홍보 담당자

Marta de Movellan, Lévy Gorvy, marta@levygorvy.com

Sam Talbot, sam@sam-talbot.com

이미지: 프란츠 웨스트 <무제 (캔을 이용한 대형조각) Untitled (large sculpture with can)> 2010. 페이퍼마쉐, 스티로폼, 아크릴 래커, 캔. 132 x 104 x 95 cm. 개인소장. © Archiv Franz West, © Estate Franz West.